I'm Sorry 캠페인, 모두를 위한 사법/행정제도 마련의 중요성

김윤희(고려지부), 박수진(고려지부)

SDGs Goal 16번은 다른 목표들의 달성을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모든 사람들을 위한 정의에 대한 접근을 제공하며 모든 수준에서 효과적이고 책임감 있고 포괄적인 기관들을 건설하는 것을 강조한다. 이는 제도의 확립과 이것을 따를 수 있는 행정절차의 마련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행하는데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준다.

이 목표는 인신매매, 아동노동 착취 등과 같은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갖추는데 기여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유엔아동권리협약 등의 국제 조약에서도 명시하고 있는 아동이 '출생 등록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보편적 출생 신고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아동 인권의 신장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행동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서 등장한 것이 PLAN의 'I'm sorry' 캠페인인데, 이는 올바른 제도의 도입과 그것의 실행이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움직임에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알고 그것을 이끌어내기 위한 캠페인이다.

본 캠페인은 국제구호개발 NGO 플랜코리아가 보편적 출생신고 네트워크(Universal Birth Registration, 이하 UBR)의 I'm sorry 캠페인에 동참한 것이다. I'm sorry 캠페인의 명칭은 세상에 태어났지만 출생신고조차 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아이들에 대한 미안함을 담고 있으며, 관련된 법안의 개정을 위해 사람들의 서명 참여를 요청하고 있다. 출생신고가 중요한 이유는, 신고가 정확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동의 존재를 국가가 알지 못해 교육, 의료 등의 기본적인 권리를 제대로 보장해주기 어렵기 때문이다.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모든 아동은 출생 후 즉시

등록되고, 성명을 가진다") 및 유엔아동권리협약("아동은 출생 후 즉시 등록되어야 하며") 등의 국제 인권 규약도 보편적 출생신고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플랜 인터내셔널은 이미 지난 2005 년, 출생 등록 캠페인인 Count Every Child 캠페인을 시작한 바 있다. 이를 통해 지금까지 32 개 국가의 4 천만 명의 어린이와 지역 주민들이 출생등록을 마쳤으며, 10 개 국가에서 출생신고와 관련된 법 개정도 이루어졌다. 그 결과, 약 1 억 5 천만여 명의 사람들이 출생신고를 통해 당당한 인구 구성원으로서 보호받고 권리를 인정받게 되었다. 또한 UBR 은 2017 년 7 월 '보편적 출생신고 법률지원단'을 발족하여 출생신고가 되지 못한 아동들에게 법률상담과 소송 지원을 제공하는 등 다방면에서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PLAN의 캠페인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입법화는 인권 보장을 위해 가장 기본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사항이다. 그만큼 모두가 접근 가능한 제도의 도입과 행정절차의 구축은 중요하다. UBR과 플랜코리아 등의 다양한 노력을 통해 사법 및 행정 제도의 마련을 위한 움직임이 조금씩 활발해지고 있지만,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SDGs 목표 달성을 위한 정부, 국회 차원에서의 제도 구축 노력이 미흡한 상황이다. 우리 모두가 목표 이행을 위한 사법 행정제도 마련의 중요성을 깨닫고 이를 위해 노력하는 사회가 다가오기를 기대한다.

참조자료

- 보편적 출생 신고, 모든 아동 인권의 시작

http://www.bkl.or.kr/bbs/board.php?bo_table=B14&wr_id=16

- 지속가능발전목표 SDGs 16

http://ncsd.go.kr/app/sub02/20_tab4.do#

- 플랜코리아, 아동 인권과 보편적 출생신고 위한 'I'm sorry 캠페인' 동참

https://www.plankorea.or.kr/news/news/view/4855

- 10 Years of Counting Every Child

https://plan-international.org/10-years-counting-every-child